

# KWDI 이슈페이퍼

수행과제명 또래문화를 통해 본 청소년의 성평등의식과 태도 연구(Ⅰ): 남녀 청소년의 또래문화와 젠더의식 격차 비교  
과제책임자 최윤정 연구위원 (Tel: 02-3156-7176 / E-mail: cyj@kwidimail.re.kr)

## 또래문화를 통해 본 청소년의 성평등의식과 태도 연구(Ⅰ): 남녀 청소년의 또래문화와 젠더의식 격차 비교

### 초록

- 우리사회에서 성별 갈등은 점차 심화되고 있으며, 실제 초중등 일부 남학생들 사이에서 여성혐오, 성희롱 그리고 이로부터 확산되는 폭력 문화의 경향이 관찰되고 있음. 이와 같은 청소년들의 혐오문화와 성희롱 문화는 그들의 또래 집단 문화와 무관하지 않으며, 특히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매체와 문화 콘텐츠 등 다수의 매체를 통해 성인 세대의 잘못된 성차별적 인식과 혐오적 태도가 청소년 세대에게 전수되는 것으로 추측됨.
-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에서는 십대 핵심 연령층의 온라인 문화, 음란물 소비 문화, 팬덤 문화, 외모 인식과 꾸미기 문화, 또래관계, 연애편계, 성 문화, 학교교육, 진로와 사회참여, 성평등과 페미니즘에 대한 인식을 분석대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여 또래문화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것의 성별 격차 및 연령 격차 등을 확인하였음. 이를 통해 도출되는 남녀 청소년의 성평등 의식의 지형을 파악하는 한편, 이것이 그들의 또래문화와 가지는 상관성을 확인함으로써 또래문화의 특성과 그것의 의미를 함축하고, 향후의 정책 설계나 후속 연구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1. 배경 및 문제점

- ▶ 성평등 의식 수준은 연령이 낮을수록 높아지나 성별 갈등과 이슈에 대한 태도 또한 연령이 낮을수록 첨예해지는 것으로 목격됨. 이는 우리사회에서 성별 갈등이 점차 심화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실제 초중등 일부 남학생들 사이에서 여성혐오, 성희롱 그리고 이로부터 확산되는 폭력 문화의 경향이 관찰되고 있음.
- ▶ 이와 같은 청소년들의 혐오문화와 성희롱 문화는 그들의 또래 집단문화와 무관하지 않음. 특히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매체와 문화 콘텐츠에는 성인 세대의 잘못된 성차별적 인식과 혐오적 태도가 내재되어 있고, 이것이 다수의 매체를 통해 청소년 세대에 전수되는 것으로 추측됨.
- ▶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에서는 십대 핵심 연령층의 온라인 문화, 음란물 소비 문화, 팬덤 문화, 외모 인식과 꾸미기 문화, 또래관계, 연애편계, 성 문화, 학교교육, 진로와 사회참여, 성평등과 페미니즘에 대한

인식을 분석대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여 또래문화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것의 성별 격차 및 연령 격차 등을 확인하고자 함.

- ▶ 이를 통해 도출되는 남녀 청소년들의 성역할 인식, 성차별주의, 젠더이슈, 성별 갈등에 대한 태도와 이들 요인 간의 관계를 성별, 연령별로 비교하여 청소년층의 성평등 인식의 지형을 파악하는 한편, 이것이 그들의 또래문화와 가지는 상관성을 확인함으로써 또래문화의 특성과 그것의 의미를 함축하고, 향후의 정책 설계나 후속 연구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2. 조사 및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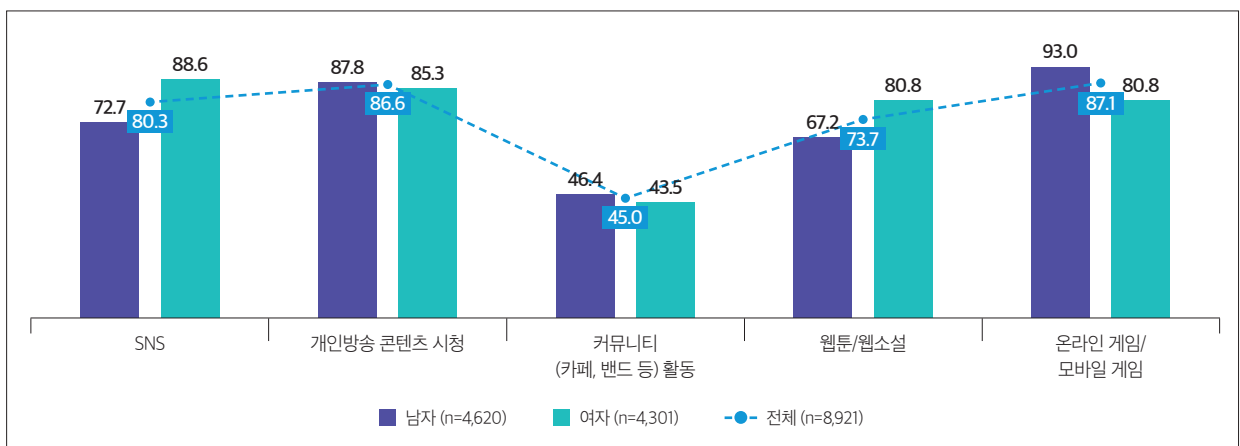
- ▶ 본 연구에서는 전국의 초등학교 6학년에서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남녀 청소년 8,921명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성평등 인식과 태도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함.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또래문화 영역을 크게 또래관계, 온라인 문화와 팬덤문화, 신체와 외모인식, 연애편계, 성문화, 학교생활과 성평등인식으로 구분하여 각 영역별 청소년의 또래문화와 이에 내재한 특성 등을 심층 분석하였음.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가 청소년의 온라인 문화

- ▶ 남녀 청소년들은 각기 다른 목적과 이유로 온라인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이들이 활동하는 온라인 영역은 남녀 청소년 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남성 청소년들은 게임(12.2%p), 여성 청소년들은 웹툰·웹소설(13.6%p)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여성 청소년은 남성 청소년보다 SNS 의존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와 같은 결과는 주로 이용하는 SNS 플랫폼(트위터 26.3%p, 인스타그램 25.4%p)의 선호도 차이로도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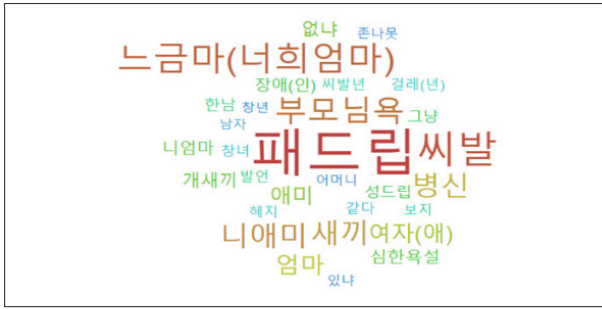
<그림 1> 평소 온라인 활동 참여 정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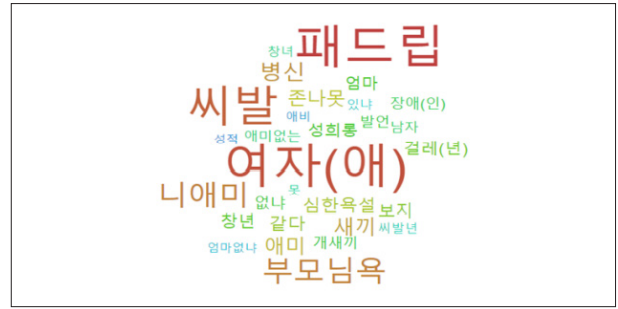


- ▶ 온라인에서의 성차별과 혐오 표현이 심각한 수준이며, 적지 않은 청소년들이 이에 노출되는 것으로 확인됨. 게임을 하는 청소년의 약 삼분의 일(남 34.2%, 여 34.6%)은 게임 중 성차별적 혐오 표현을 듣거나 목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함. 패드립이나 엄마 욕/부모님 욕으로 대부분이나, 여성 청소년의 경우, “여자(애)”라는 본인의 성별과 관련한 욕설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함.

<그림 2> 게임 중 경험한 욕설혐오(남성)



<그림 3> 게임 중 경험한 욕설혐오(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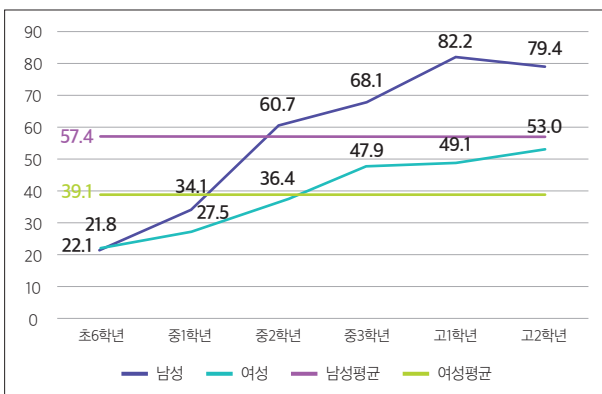


- ▶ 여혐 또는 남혐 표현들이 온라인에서의 전파력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확인됨. 청소년 사이에서 혐오 문화가 어느 정도 공유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각각의 문화를 대표하는 '위마드'와 '일간베스트'에서 통용되는 멤버십이 높은 용어 몇 개를 선정, 청소년들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지를 조사함. 그 결과, 남성 청소년들의 12.2%, 여성 청소년들의 7.5%가 일베 용어들을 알고 있고, 남성 청소년들의 10.6%, 여성 청소년들의 11.1%가 위마드 용어들을 아는 것으로 나타남. 실제 남녀 청소년들의 '일간베스트' 방문 비율이 3% 이하이고, '위마드' 방문 비율이 1% 미만이라는 점을 상기하면, 이들 사이트 유통 용어들의 전파력이 적게는 네 배에서 많게는 열 배 이상 퍼져서 청소년들 사이에 유통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 여성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게임 문화에 깊숙이 내재되어 있고, 이러한 경향이 특히 남성 유저들을 통해 강화되는 것을 확인하였음. 22.3%(남 20.8%, 여 24.1%)의 청소년들이 게임에서 남성들이 여성을 무시하거나 괴롭히는 상황을 목격했다고 응답하였음. 약 20% 안팎의 남성 청소년들은 팀의 승리를 위해 게임을 못하는 사람에게 욕이나 혐오적 발언을 할 수 있거나(남 22.2%, 여 7.1%), 게임을 못하는 사람을 강퇴시킬 수 있다(남 25.5%, 여 14.7%)고 하는 등 게임에서의 승리를 위해서라면 혐오적 발언이나 비인권적 대우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음. 또한 최소 10% 이상의 남성 청소년들은 능력보다는 성적 노출과 야한 이미지로 게임의 재미를 가미하는 존재로서의 여성 캐릭터를 선호한다는 것이 조사 결과에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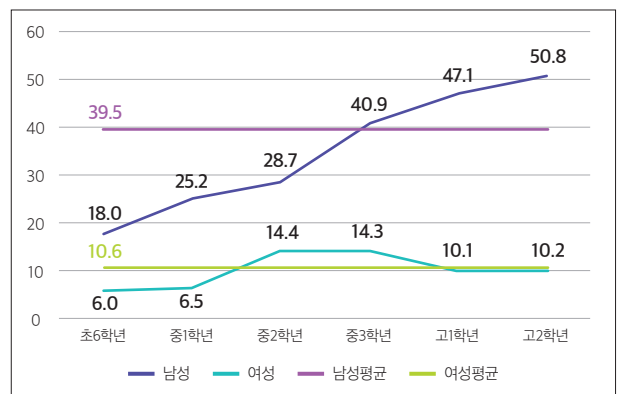
## 4 청소년의 음란물 소비 문화

- ▶ 본 조사에 따르면 초6~고2 남성 청소년의 79.4%, 여성 청소년의 39.1%이 음란물을 시청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음란물을 처음 접하는 시기는 남성 평균 13.1세, 여성 평균 13.2세임. 또한 남성 청소년 중 39.5%, 여성 청소년의 10.6%가 일주일에 1회 이상 시청한다고 응답함. 이와 같은 경향은 연령/학년에 따라 성별 차이가 심화, 주당 1회 시청 비율의 경우, 고2에서 가장 큰 경향을 보임(40%p)

<그림 4> 음란물 이용 경험 비율 (단위: %)



<그림 5> 주1회 이상 음란물 시청 비율 (단위: %)



- ▶ 청소년들이 처음 음란물을 보게 된 경로는 인터넷을 하다가 우연히 보게 되었거나(남 40.6%, 여 43.8%), 무분별하게 열리는 팝업 창(남 18.7%, 여 35.4%)으로 인해 처음 접하는 경우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 아동·청소년들의 인터넷 사용 환경이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음란물 소비 문화가 청소년 사이에서 일찍 시작되고, 지속할 수 있는 것은 음란물 접근이 용이한 인터넷 환경에 기인함을 알 수 있음.
- ▶ 음란물의 이용 경험뿐 아니라, 음란물 이용의 효과에서도 성별 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남. 남성 청소년은 여성 청소년에 비해 음란물을 자주 보고싶다거나(남 18.1%, 여 10.0%), 음란물 시청 이후 이성친구를 성적 대상으로 본다거나(남 7.5%, 여 4.1%), 이를 따라하고 싶다거나(남 15.6%, 여 8.5%), 성추행·성폭행의 충동을 느끼는 비율(남 3.1%, 여 1.7%)이 약 두 배 가까이 높음. 반면 여성 청소년은 음란물로 인한 불쾌감이나 수치심의 느끼는 비율(남 25.7%, 여 51.2%)이 두 배 정도 됨.

## 다 청소년의 팬덤 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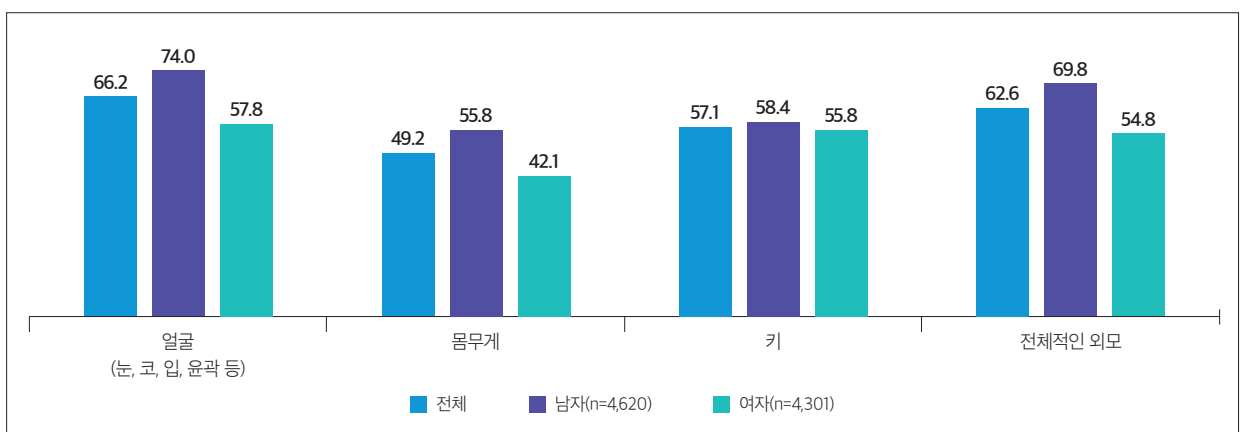
- ▶ 청소년의 주요 또래문화 특성 중 하나인 연예인 팬덤 문화는 절대적으로 여성 청소년이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남. 남성 청소년은 연예인을 노래나 춤 등 직업 관련 실력, 예쁘거나 잘생긴 외모에 큰 매력을 느껴 연예인을 좋아하는 이유가 대부분이나, 여성 청소년은 두 가지 이유 외에도 멤버들의 성장을 지켜보거나, 멤버들의 관계를 관찰을 이유로 연예인을 좋아하는 비율이 남성 청소년보다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남. 이와 관련한 소비활동 또한 여성 청소년이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남.

## 라 청소년의 외모 인식과 꾸밈문화

- ▶ 여성 청소년들은 남성 청소년에 비해 외모에 대한 만족도가 낮고, 여성의 외모를 인식하는 데 남성 청소년보다 더 엄정하며, 이상적인 외모를 갖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여성 청소년의 신체에 대한 인식과 행동은 이들의 다이어트에 대한 열심과도 맞물려 있어서 여성 청소년의 다이어트 경험은 66.6%로 남성 청소년(48.1%)보다 높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다이어트를 위한 활동 또한 남성 청소년에 비해 훨씬 적극적이고, 자극적인 것으로 나타남.
- ▶ 전반적으로 얼굴과 몸무게는 여성 청소년의 불만족 비율이 더 높고, 키의 경우에는 남성 청소년의 불만족 비율이 약간 더 높음. 그러나 연령에 따라 여성 청소년은 중3까지는 불만족 비율이 높다가 고등학교부터는 그 비율이 감소하는 반면, 남성 청소년은 연령의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불만족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6> 본인 신체에 대한 만족도

(단위 : %)



- ▶ 연령이 증가할수록 남성 청소년들이 외모에 대한 중요성을 여성 청소년보다 더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남성 청소년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외모가 1) 인기, 2) 연애, 3) 취업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에 있어서 일관되게 높아지고, 그 비율 또한 여성 청소년보다 높음. 특이한 점은 남성 청소년은 여성의 외모에 대해서만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의 외모에 대해서도 연령이 증가할수록 여성 청소년보다 더 중요하게 인식한다는 점임.
- ▶ 화장하는 여성 청소년들이 적지 않고, 이른 시기부터 화장하기 시작하여 여성 청소년들 사이에서 화장은 나름 보편적인 또래문화의 일부로 자리잡은 것으로 보임. 다만 과거에는 했으나, 현재 화장을 하지 않는다는 비율 또한 연령에 따라 점차 증가함. 그 이유 또한 연령이 증가할수록 학업이나, 여성의 꾸밈노동에 대한 반감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마

### 청소년의 또래관계

- ▶ 남녀 청소년들의 또래관계를 살펴본 결과,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동성간의 유사성(homophily)이 강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이러한 동일 성별 중심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에는 상대 성에 대한 인식과 관련한 몇 가지 이유가 존재하고, 이것이 성별로, 성장 시기별로 상이하게 나타났음. 전반적인 응답 결과를 종합해보면, 남성 청소년들은 학년이 낮을수록 이성간 친밀한 관계에 대한 불편함과 편견이 강하게 나타나는 반면, 여성 청소년들은 오히려 학년이 높아질수록 그러한 경향이 강해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연령대를 관통하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이성친구와 친하게 지내면 ‘사귀다는 오해’를 받기 때문으로 나타남.
- ▶ 주목할만한 점은 남녀 청소년 모두 학년이 높아질수록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두려움이 이성 간 친밀한 관계에 장애요인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며, 특히 남성 청소년들이 여성 청소년보다 그러한 가해의 두려움이 훨씬 큰 것으로 확인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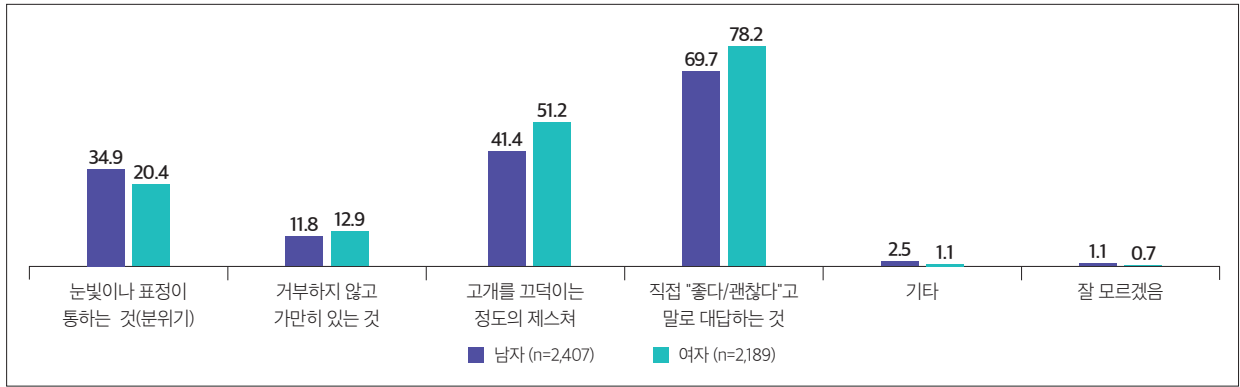
## 바

### 청소년의 연애관계

- ▶ 남녀 청소년들은 여전히 연애관계에서는 전통적인 성역할을 따르는 것으로 확인됨. 연애 경험이 있는 남성 청소년의 45.6%는 처음 교제 시 본인이 먼저 고백했다고 응답한 반면, 여성 청소년은 그 비율이 17.8%에 불과하고, 상대방으로부터 고백받은 비율이 82.2%임.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더 공고해지는 것으로 나타남.
- ▶ 연애 시 청소년들은 비교적 스킨십에 자유로운 것으로 나타남. 연애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 다수에 해당하는 77.0%는 약한 스킨십의 경험이 있으며, 학년이 높을수록 비율도 높아짐. 키스를 포함한 강한 스킨십 경험 비율도 중1 3.2%에서 고2 34.6%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다만, 스킨십에 대한 개방적인 인식과는 별개로 성관계가 가져올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일부 청소년들은 둔감하며, 특히 남성 청소년의 문제의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피임과 관련 경험에서는 약 삼분의 일 이상의 청소년들이 안전하지 않은 성관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남.
- ▶ 연애관계에서 스킨십을 할 때 ‘동의’ 표현이라고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경우는 ‘직접 “좋다/괜찮다”고 말로 대답하는 것’이 73.7%로 가장 많아 정확한 의사표현을 중시하고 있음. 그 외는 ‘고개를 끄덕이는 정도의 제스처’(46.1%), ‘눈빛이나 표정이 통하는 것(분위기)’(32.3%), ‘거부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12.3%) 순임. 성별 인식의 차를 비교해보면, ‘직접 “좋다/괜찮다”고 말로 대답하는 것’에 남성 청소년 69.7%, 여성 청소년 78.2%가 답하였고, ‘고개를 끄덕이는 정도의 제스처’에도 남성 청소년 41.4%, 여성 청소년 51.2%가 답하여 남성 청소년들이 정확한 의사표현에 대한 의식이 상대적으로 둔감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7> 본인이 생각하는 스킨십에서의 동의(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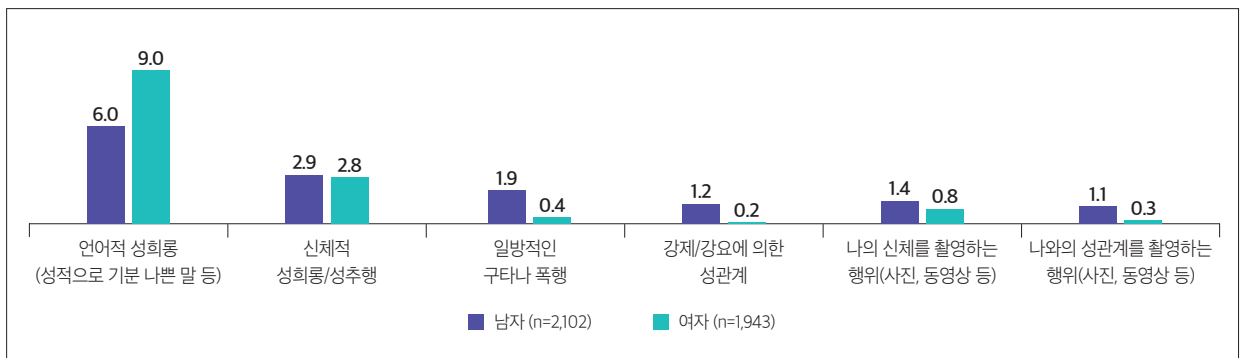
(단위 : %)



▶ 연인 간의 통제나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 스토킹 피해는 여성 청소년이 남성 청소년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토킹에 있어서도 여성 청소년(21.4%)의 스토킹 경험이 남성 청소년(16.9%)에 비해 높는데, 학년이 높을수록 그 비율이 높아져서 고2에서는 여성 청소년의 30.5%, 남성 청소년의 24.7%가 헤어진 연인으로부터 스토킹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그림 8> 연애 상대로부터 받은 성희롱·성폭력 경험

(단위 : %)



▶ 같은 세대 내에서 연애 경험의 편차가 상당히 크게 나타남. 초6부터 고2까지 청소년 중 한 번도 연애 경험이 없는 비율은 전체 48.5%이고, 여성(49.1%)이 남성(47.9%)보다 약간 더 높게 나타남. 연애 경험이 없는 이른바 ‘모솔’에 대한 놀림이나 고민은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더 증가하며, 특히 여성 청소년보다는 남성 청소년들 사이에서 더 놀림감이 되는 것(고2 남 28.6%, 고2 여 22.6%)으로 확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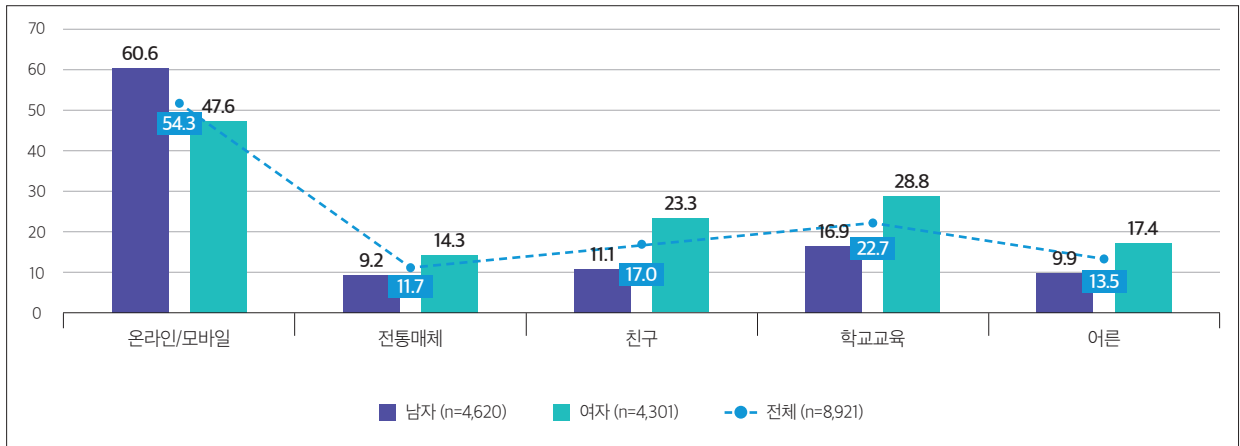
## 청소년의 성 문화

▶ 청소년들은 학교 성교육이나 어른들이 아니라, 주로 인터넷이나 온라인을 통해 성적인 호기심을 충족하고 관련 지식을 획득하는 것으로 확인됨. 특히 남성 청소년들은 여성 청소년에 비해 온라인/모바일 의존도(60.6%, 여 47.6%)가 높는데, 이는 학년이 높을수록 더 높아져서 고2 남성 청소년의 경우 사분의 삼에 해당하는 76.9%가 온라인/모바일을 통해 해소한다고 응답함. 이러한 영향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성에 대한 남녀 청소년들의 지식 수준이 낮지않게 나타남. 다만 이러한 성에 대한 높은 지식 수준과는 달리 청소년들 사이에서 성에 대한 통념을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그것이 여성 청소년보다 남성 청소년들에게서 더 강하게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됨.



<그림 9> 성적 호기심 충족 경로(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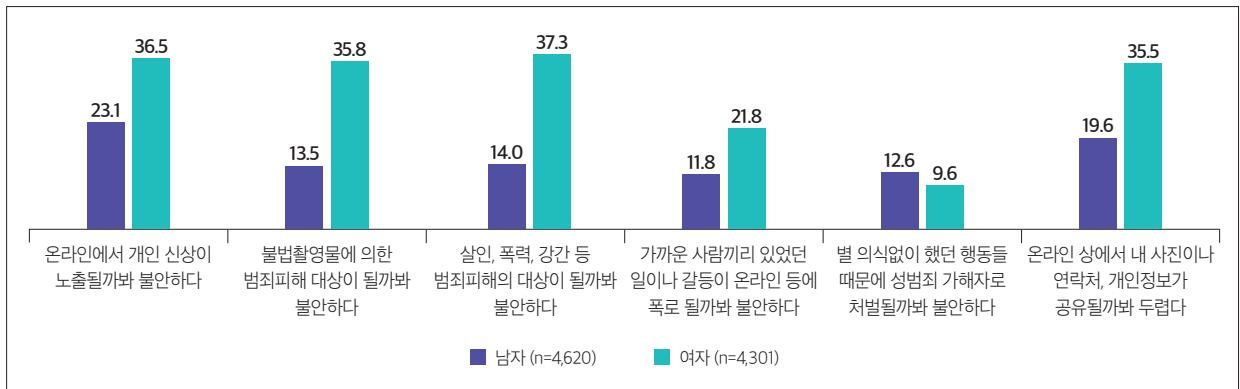
(단위 : %)



- ▶ 여전히 적지 않은 청소년들이 성희롱·성폭력의 원인이 여성들에게 있다는 통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경향은 남성 청소년들이 더 강하고, 남성 청소년의 삼분의 일은 성폭력은 여성이 조심하면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며(31.0%), 약 오분의 일은 성희롱 사건이 피해자의 예민한 반응 때문이며(22.1%), 노출이 심한 옷차림이 성폭력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함(19.3%).
- ▶ 적지 않은 청소년들이 디지털 범죄나 성범죄 피해에 대한 불안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경향은 여성 청소년에게서 더욱 두드러지는데, 삼분의 일 이상의 여성청소년들이 불법촬영이나, 강력범죄의 피해, 개인신상 유출에 불안을 느낀다고 하였으며, 고2의 여성의 경우, 절반(47.2%)에 가까운 비율이 불법촬영물의 피해를 우려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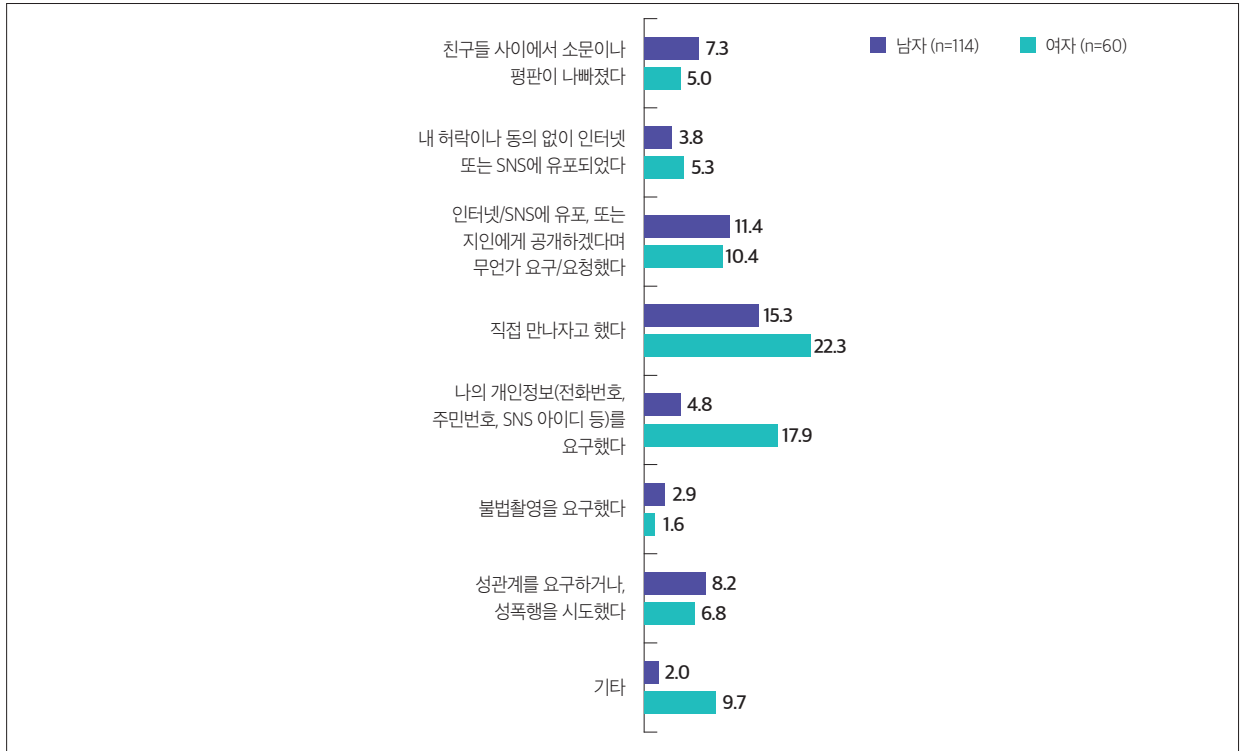
<그림 10> 디지털 범죄 및 성범죄 피해에 대한 불안

(단위 : %)



- ▶ 청소년들 사이에서 불법촬영물로 인한 피해와 가해의 위험이 존재하고, 극단적으로는 N번방과 같은 피해사례로 이어질 가능성이 발견되었음. 다른 사람의 허락 없이 웃긴 사진, 자는 사진, 엽사, 몰카, 신체 사진 등 타인의 모습을 촬영한 적이 있는 경험은 전체의 23.9%이고, 남성 청소년 19.2% 여성 청소년 28.9%이며,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비율이 높아짐. 또한 휴대전화 또는 컴퓨터를 사용하여 성적인 사진/동영상을 주고 받거나 변형한 적이 있는 경험을 한 비율은 남녀 모두 8.0%로 나타남. 이들 중 자신의 신체/성적 영상물을 배포한 청소년들의 과반 이상(52.6%)은 이로 인한 피해를 당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들 중 23.7%의 청소년은 상대방과 성관계를 맺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으며(남 29.1%, 여 14.9%), 자신의 개인정보를 넘겨준 비율도 12.5%인데, 특히 여성 청소년의 경우 그 비율이 31.0%임(남 1.2%).

<그림 11> 휴대전화/PC를 사용하여 성적인 영상물을 주고받은 경험(중복응답)



아

## 청소년의 학교교육 및 학교생활 인식

- ▶ 첫째, 전체적으로 볼 때, 남녀 청소년들이 학교 성교육에 대해 갖는 생각은 지식이나 정보를 얻기 어려울 뿐 아니라, 다른 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방법을 배우기도 어렵다는 것임. 특히 여성 청소년들은 학교 성교육이 성을 이해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고(남성 34.1%, 여성 46.8%), 청소년들이 원하는 성적 지식과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다(남성 34.4%, 여성 47.3%)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학교에서 실시하는 성교육 내용과 방법에 대한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 둘째, 남녀 청소년들은 학교 양성평등교육 역시 새롭거나 흥미를 갖기 어렵고, 성역할이나 고정관념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특히 여성 청소년들의 60.4%는 학교 양성평등교육이 늘 다 아는 이야기만 하여 흥미를 갖기 어렵다고 함. 남성 청소년은 ‘학교 양성평등교육이 성평등의식을 향상하기보다 갈등을 발생시키는 것 같다’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24.1%로 다른 문항에 비해 여성 청소년(20.7%)의 응답보다 높음.
- ▶ 셋째, 학교라는 공간이 성평등한 관점에서 운영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즉, 남녀 청소년들은 교사들의 성별 고정관념으로 인해 차별을 경험한 경우가 있었으며, 남녀 청소년 모두 학교의 규율이나 규제, 지나친 간섭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학생의 복장이나 두발에 대한 규제뿐만 아니라 임신이나 성 정체성 등 개인의 상황과 특성이 학생의 학습권을 제한하는 일 등이 없어야 한다는 등 남녀 청소년 모두 전반적으로 학교 운영을 성평등한 관점에서 개선할 필요성에 대해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자

## 청소년의 진로와 여성의 사회참여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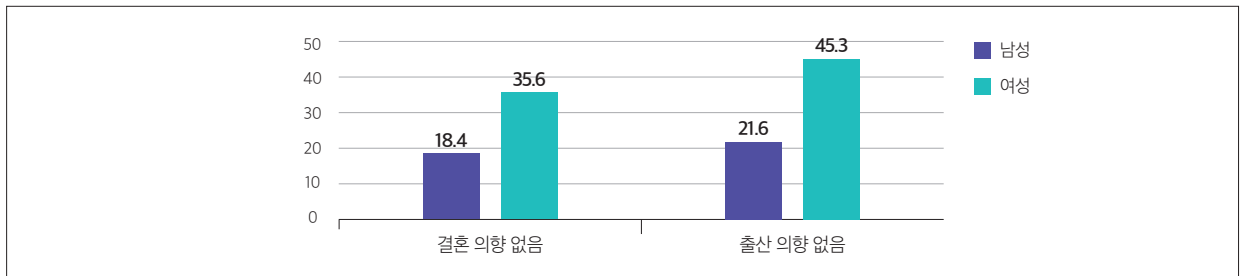
- ▶ 첫째, 선호하는 과목이나 희망 전공계열을 보면, 수학은 초등학교 6학년 수준에서 남성 청소년의 선호도가 훨씬 높지만, 고2 수준으로 가면 남성 청소년의 선호도도 낮아져서 남녀 청소년 간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음. 좋아하는 과목이 하나도 없는 여성 청소년은 8.2%로 남성 청소년 7.0%보다 다소 높게 나타남.



- ▶ 둘째, 진로선택 기준(1+2순위)에 있어서 남녀 청소년 모두 개인적 관심과 흥미(각각 60.6%, 65.1%)가 가장 주된 기준으로 응답이 많았으나, 그 다음으로는 남성 청소년은 수입과 연봉(53.4%), 적성과 소질(53.1%)이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난 반면, 여성 청소년은 적성과 소질(55.1%)이 수입이나 연봉(44.9%)보다 높게 나타남. 고용 안정성, 워라벨과 관련된 항목은 여성 청소년이, 사회적 지위나 명예는 남성 청소년이 비교적 높게 나타남.
- ▶ 셋째, 결혼과 출산에 대한 남녀 청소년의 동상이몽이 뚜렷하게 나타남. 여성 청소년의 35.6%, 남성 청소년의 18.4%가 장래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응답하였고, 여성 청소년의 45.3%, 남성 청소년의 21.6%는 장래 출산하지 않겠다고 응답함. 절반에 가까운 여성 청소년들이 출산의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음.

<그림 12> 장래 결혼 및 출산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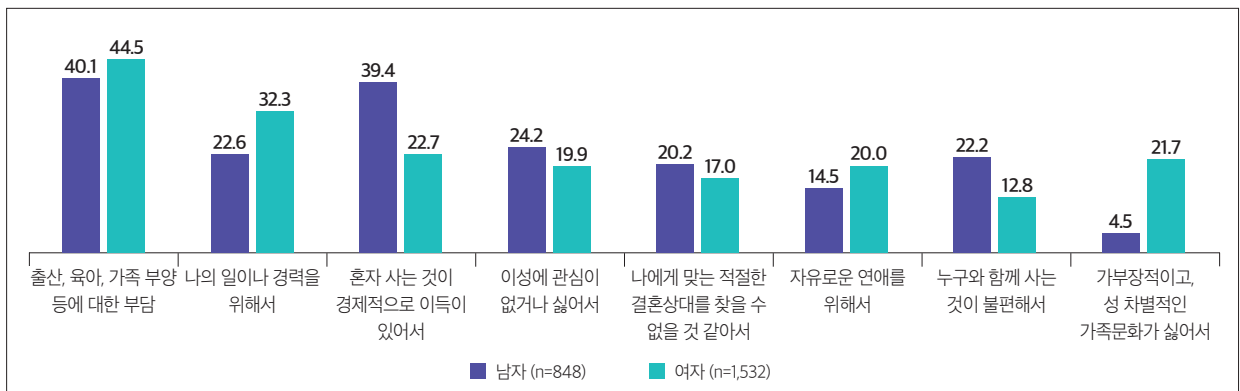
(단위 : %)



- ▶ 남녀 청소년의 결혼, 출산 거부 이유는 상이한 것으로 나타남. 남녀 모두 육아 및 부양에 대한 부담 때문이나, 남성 청소년은 경제적인 이유가 큰 반면, 여성 청소년은 본인의 경력유지와 가부장적 가족문화에 대한 반감 등으로 인한 결혼 거부, 출산에 대한 두려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남. 경력유지와 출산에 대한 두려움은 이전 세대에서도 관찰된 바이나, 가부장적 가족문화가 주요 이유로 꼽히는 것은 새로운 경향이라 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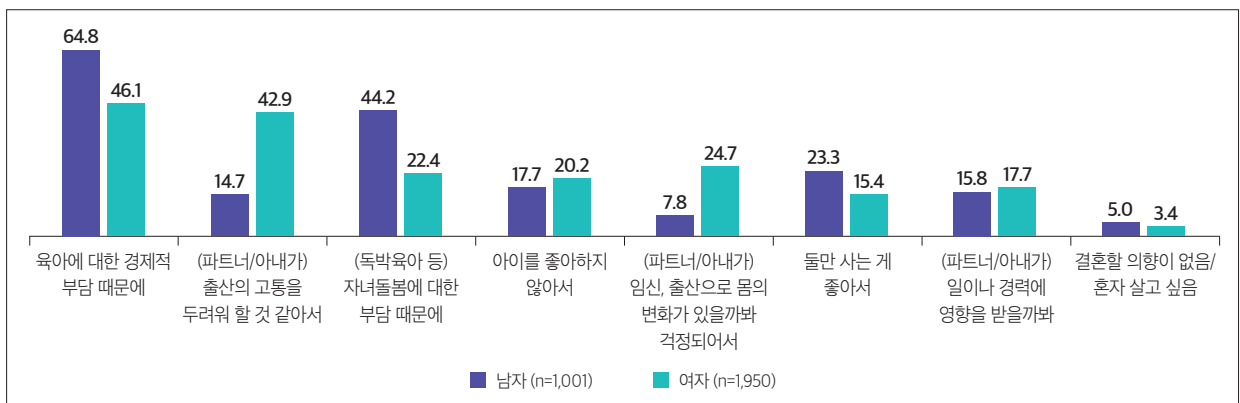
<그림 13> 장래 결혼하지 않으려는 이유(1+2순위)

(단위 : %)



<그림 14> 장래 출산하지 않으려는 이유(1+2순위)

(단위 : %)



- ▶ 여성 청소년들은 여성의 사회참여에 대해 사회적인 성차별이 존재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비율이 70.0%로 남성 청소년(38.3%)의 응답과 큰 차이를 나타냄. 남성 청소년은 특히 일가정 양립으로 경력 지속도 어렵고, 여기에 여성의 자질과 능력 부족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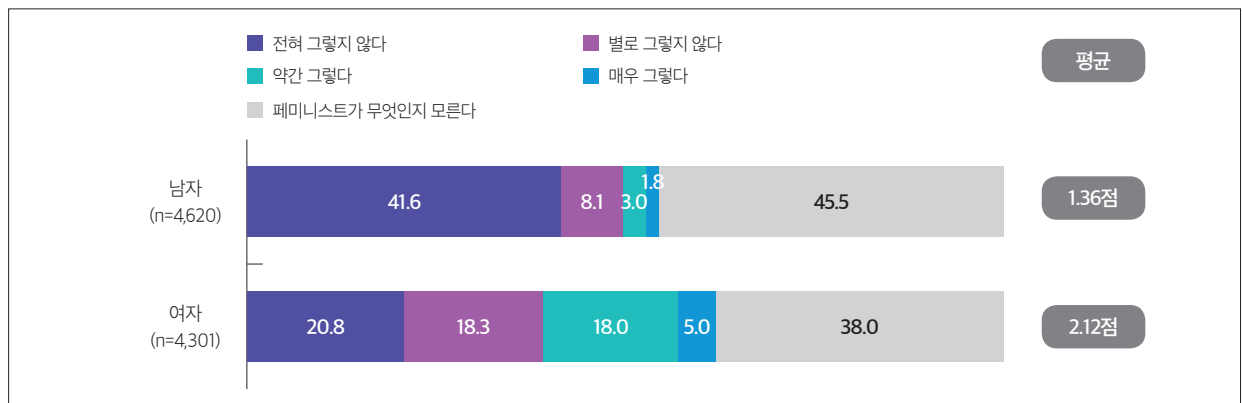


## 청소년의 성평등 의식과 페미니즘에 대한 인식

- ▶ 남녀 청소년의 성평등의식을 측정한 결과, 남성 청소년의 의식 수준이 더 낮고, 고정관념이 강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남성 청소년은 회사에서 가장 높은 직책은 여자보다 남자가 더 적합하다’(10.8%p), ‘맞벌이도 가능하지만 생계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남자에게 있다’(10.7%p), ‘여자보다 남자를 더 많이 취직시켜야 한다’(9.0%p)의 문항에서 남녀 청소년 간 인식의 차이가 큼. 온정적 성차별주의도 28.8% 관찰됨.
- ▶ 주목할 만한 점은 이러한 성별 경향의 차이가 연령에 따라 더욱 심화된다는 점임. 가령, ‘생계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남성에게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15.5%(초6)에서 25.1%(고2)로, ‘여성은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내세운다’에 대해서도 11.6%(초6)에서 20.8%(고2)로 더 심화됨. 이는 남성 청소년들은 성장하면서 더 전통적인 고정관념을 공고히 하는 반면, 여성 청소년들은 자랄수록 비전통적인 고정관념 다시 말해, 성별 고정관념을 해소함을 의미하며, 이러한 격차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줌.
- ▶ 많은 청소년들이 페미니즘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갖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전체 청소년의 41.9%는 페미니즘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고 응답하였는데, 특히 남성 청소년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거의 절반(45.5%)에 가까움. 본인 스스로 페미니즘을 이해한다고 믿는 청소년들 중에서도 남성 청소년의 32.3%는 페미니즘을 여성 우월주의로 인식하고 있고, 또 다른 29.6%는 남성 혐오주의로 이해하여 전체 남성 청소년의 61.9%는 페미니즘을 평등이 아닌, 차별과 혐오로 인식하고 있음. 이에 대한 여성 청소년의 비율도 24.0%에 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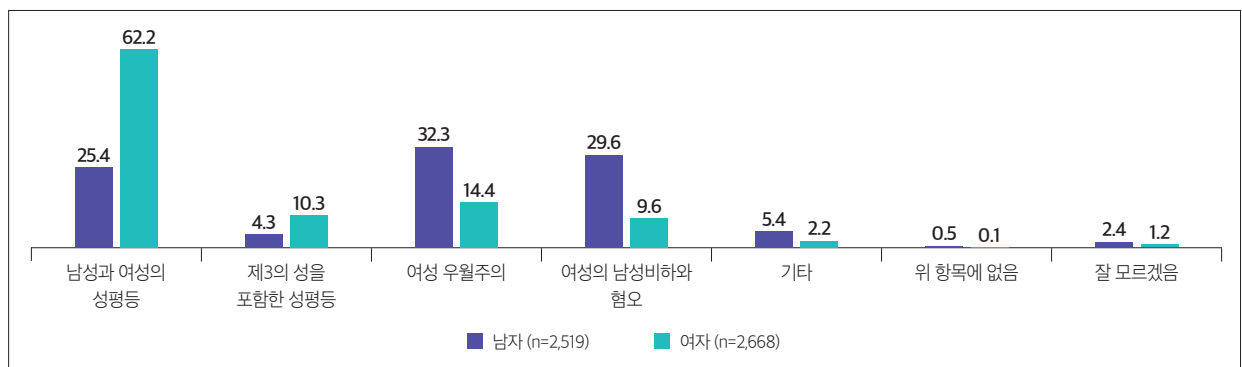
<그림 15> 본인을 페미니스트로 생각하는지 여부

(단위 : %)



<그림 16> 자신이 생각하는 페미니스트의 정의

(단위 : %)



- ▶ 상당수의 남성 청소년들은 이미 남녀의 권리는 평등하기 때문에 여성운동은 오히려 남성의 권리를 침해하고, 우리사회에서 남성의 입지를 불리하게 만든다고 보고 있음. 문제는 여성 청소년들에 비해 남성 청소년들의 견해들이 성장주기별 변화가 뚜렷하고, 성장하면서 더 남성주의적인 경향을 보인다는 점임. 여성 청소년의 응답 경향은 초6이나 고2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남성 청소년들은 초6에 비해 고2가 두 배 혹은 세 배 높아져 급격히 비율이 증가함. 이상의 결과들은 남녀 청소년의 성평등의식 격차가 처음부터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성장하면서 격차가 심화, 고등학교에 이르면 깊은층 성인 수준의 격차를 보인다는 것을 보여줌.

### 3. 정책제언

#### ▶ 청소년을 위한 온라인 환경 개선 강화

- 첫째, 청소년들에게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 기업도 다양한 시청자 집단에 대한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이나, 심의 기준을 제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함.
- 둘째, 플랫폼을 통해 공급되는 온라인 콘텐츠 외에도 무분별한 온라인 광고 또한 사회적 검토가 요구됨. 공공 웹페이지에서의 무분별한 성인광고를 규제하거나, 신고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함.
- 셋째, 게임이 청소년들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력과는 달리 게임 콘텐츠에 대한 규제는 상당히 제한적이므로, 온라인 게임에서 성 의식 및 성 역할에 대한 왜곡 없는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넷째, 성차별적이고 혐오적인 콘텐츠를 온라인 시장에서 퇴출하는 것과 함께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성평등한 사회적 모형을 제시하는 대안적 콘텐츠를 생산하는 것도 중요함. 차별적, 혐오적 콘텐츠의 반대급부로 성평등한 관점에서 콘텐츠를 제작하는 정책 지원이 필요함.

#### ▶ 교육을 통한 성평등 및 성 의식 제고

- 첫째, 청소년의 성평등의식과 태도를 제고하기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 개선해야하는 부분은 학교 성교육의 내용과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임. 현재의 성교육은 제한된 범위에서 신체발달과 성폭력 예방에만 집중되어 있음. 포괄적성교육의 관점을 도입,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청소년 대상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해야 함. 성희롱, 성차별적 콘텐츠가 난무하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개개인의 성 인지적인 감수성을 높이고, 성평등 관점에서 콘텐츠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이 강화되어야 함.
- 셋째, 성평등한 진로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청소년들이 전공이나 진로선택에 있어 성별 고정관념을 탈피할 수 있도록 지금의 진로교육 전반에 젠더 이슈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감,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함. 성평등 관점을 반영한 진로교육자료, 진로교육지침 등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관련 인력들을 대상으로 성평등한 진로교육의 필요성과 관련 역량을 교육시켜야 함.

주관부처: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청소년보호과  
관계부처: 교육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